

· 자료제공 : 대구경북양돈농협 경영기획본부 / Tel.(053) 550-7808
· 내용문의 : 대구경북양돈농협 경영기획본부 김강민 계장 / Tel.(053) 550-7808
· 쪽 수 : 1P

☒ 첨부파일 ☐ 사진포함

대구경북양돈농협 상인지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에 기여

- ☐ 대구경북양돈농협(조합장 이상용)은 이달 15일, 상인지점 직원들이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구달서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 ☐ 지난 4월 9일, 상인지점 고객 A씨가 내방하여 계좌 잔액 전액 현금 인출을 요청하였다. 고객의 불안해하고 초조한 모습, 당황하여 횡설수설하는 것을 보고 직감적으로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였다.
- ☐ 서연실 팀장은 고객에게 따뜻한 차를 드리고 진정시킨 후에 상담을 이어갔고, 현금 인출 사유를 확인해보니, 우체국 등기 우편 수령을 가장한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자 관할 경찰지구대에 출동을 요청하여 함께 면담을 진행했다.
- ☐ 면담 결과 우체국 직원을 가장한 금융사기로, 금융피해는 없었지만 얼굴 사진과 같은 개인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이 이루어졌었다. 상인지점은 ‘시티즌 코난’ 어플을 설치해 악성, 원격 프로그램 설치 유무를 확인하고, 고객 계좌를 안심차단 서비스, 개인정보 노출자 전산 등록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방법으로 조치를 취했다.
- ☐ 대구경북양돈농협 이상용 조합장은 “얼마 전 본점에 이어 상인지점에서도 피해 예방 사례가 생겨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앞장서고 있는 직원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자칫 우리 농협을 믿고 이용해주시는 고객분들에게 피해가 생길까 큰 걱정이 앞선다.” 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섬세한 대응으로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 고객분들이 금융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